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추수감사주일: 오늘 14시 연합예배, 성찬식
- 예배당 진입문 변경: 오늘부터 예배 시작 5분 전에 강대상 쪽 출입문 닫고, 반대편 쪽 정문으로만 출입합니다.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11월 7일 토요일)
- 네팔 돕기 현금: 총 780유로 Aktionsbündnis Katastrophenhilfe 통해 전달
- 오병이어 모금통에 관심 가져 주세요.
- 라합1나라 모임: 10월 6일(화) 10시 30분 박성희 님 가정
- 빛나라 모임: 10월 7일(수) 14시 김한진 님 가정
- 지난 주 방문: 지수정 • 출타: 강판연
- 생일: 백능현, 함성식
- 담임목사 휴가: 10월 5일-16일, (11일 주일 부다페스트장로교회 설교)
설교: 10일 토요기도회-이동훈 목사, 11일 주일-박승은 목사
- 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 11월 22일 주일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총 7인 위원회) ☞ 10월 25일 주일 예배 후 각 그룹별 모임

◆말씀일기 일정

일/삿17:1-13 월/삿18:1-20 화/삿18:21-31 수/삿19:1-10
목/삿19:11-21 금/삿19:22-30 토/삿20:1-7 일/삿20:8-2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89독

◆ 예배위원 안내 ◆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예배기도	권순아	채해웅	백윤정	최수정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김대진 임나원			
애찬위원	다함께	밥상 여덟	밥상 하나	밥상 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추 수 감 사 주 일 예 배 Erntedankfest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66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105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591장	다 함 께
기도/Gebet		권순아 집사
찬양/Chor	주 이름의 위엄과 영광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사사기 17:1-13	인 도 자
설교/Predigt	내 멋대로 감사	손교훈 목사
성찬식/Abendmahl	집례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79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봉헌송: 주는 포도나무	찬 양 대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사사기 16:15-31 '머리털'◀

여인에게 집중하다가,
간교하게 유혹하는 여인에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겨 가는 삼손,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 그 힘을 빼 버리려 하는,
블레셋의 미인계에 조금씩 틈을 더 많이 보여 준다.
새 활줄, 새 밧줄들, 머리털과 벼들의 낱실에 섞여 짠 것에서, 머리털까지 점점,
그러다 결국엔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다 내주어 버렸다.

그는 머리털이 밀린 후에,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외치며 나서 보지만, 무력하기 그지 없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20) 있으니,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오늘의 신앙, 오늘의 권능이 절대 자동으로 내일로 이어지는 것 아니니,
오직 나는 매일의 '만나'로, 순간 순간의 호흡으로 지금 살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내 머리털이 밀리지 않기를 애써야 한다.
정결의 머리털, 권능의 머리털,
신뢰의 머리털, 순종의 머리털이 밀리고 뽑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죄악의 멍돌을 돌려서는 안 된다(21).

주여, 삼손의 머리털이 잘려나간 뒤, 그래도 다시 자라난 것처럼(22),
언젠가 밀리고 잘려나간 내 머리털도 다시 자랄 수 있게 하소서.
남은 머리털 관리 잘 하며 살게 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든 더 큰 노래로
나의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28-30).

▶지난 주 봉헌 내역(9월 27일-10월 3일)◀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네팔)
신형만, , 전소현, 권순아, 미노쉬빌라, 두리쉬빌라, 민명희, 김한진, 백능현	코르넬리우스 브린	홍이든(생일), 박희영(장례), 김호정	단주현, 권순아, 두리쉬 빌라, 미노쉬빌라, 무명4
총액 1.643,50유로 = 1.363,50(예배당) + 280,00(온라인)			